

12世紀 이후 韓國農書의 形成 및 編纂類型에 관한 綜合的 考察〔Ⅱ〕

金 榮 鎮 *

V. 韓國農書 中の 異型農書

1. 文體(字)에 따른 編纂異型
2. 月令式 農書

VI. 韓國農書의 類型에 따른 時代區分

V. 韓國農書 中の 異型農書

우리 나라의 옛 農書는 기술한 바와 같이 專門農書에서 비롯되어 綜合農書와 專門農書로 대별되나 이와 같은 구분은 農書가 담고 있는 내용이 2개 부문 이상을 綜合하여 편찬하였느냐, 特定分野만을 專門적으로 다루어 편찬하였느냐의 차이뿐이다.

본항에서는 이와 같은 綜合 또는 專門農書 여부를 떠나 編纂 方法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코자 한다. 따라서 동일 재료(종합 또는 전문농서)로 視角을 달리하여 고찰하기 때문에 앞서 밝힌 바와 부분적인 중복이 불가피하다. 그와 같은 고찰은 당해 農書가 外國農書의 초록본인가의 여부에서부터 吏讀註解 또는 한글諺解에 이르기까

지 각 農서를 사용 문자별로 類型化하고 이들 類型의 農서들이 갖는 시대적 合理性을 밝히고자 한다. 또 農서에 따라서는 종합농서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서술의 내용을 月令式 또는 節候式으로 풀이한 農서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農서들이 갖는 장단점도 아울러 고찰코자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은, 우리 나라 農書가 어떤 文化的, 技術的 인과관계로 그와 같은 類型의 農서를 편찬하지 않을 수 없었나를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뿐 아니라 나아가 農學史 및 技術史 연구나 農경문화의 국제적 교류를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1. 文體(字)에 따른 編纂異型

가. 抄錄本 또는 註解를 겸한 抄錄本農書

우리 나라에서 미처 農서편찬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11세기까지는 기술한바 오로지 중국농서를 이용하여 왔다. 中國農書 이용이 가능하였던 까닭은 이미 앞서 밝힌 바와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農法이 독자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風土的·文化的 배경이 다른 중국 農서는 우리 실정

* 院長

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불편한 대로 중국 농서를 이용하는 한편 중국 농서에서 우리의 농업기술 수준이나 실정에 맞는 것만을 골라 편찬한 것이 중국 농서의 抄錄本 농서라고 볼 수 있다. 초록본 농서는 우리 風土 중심의 한국적 농서가 편찬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농서라고도 볼 수 있으나 우리 농서가 편찬된 후에도 새로운 기술 도입이나 국내 농서의 부족한 점을 보충코자 계속 편찬·이용되어 왔다. 두드러진 현상은 여말 선초뿐 아니라 대한제국 말기에 새로운 서구 농업기술이 도입되면서 일본 농서를 초록하여 사용한 사실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밝혀 둘 것은 무엇을 초록본 농서라고 하느냐 하는 점이다. 초록본 농서는 외국의 단일 농서나 수종의 농서에서 이리저리 초록하여 농서를 엮되 초록자의 농학적 지식이 전혀 보태지지 않았거나 보태어졌다 하더라도 당해 농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될 정도로 극소한 경우를 초록본 농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초록본 농서는 몇 가지 類型이 있다. 오래된 순서대로 밝혀 본다면 첫째 유형은 외국의 단일 농서를 초록하고 이에 吏讀로 附註한 類型이다. 둘째 유형은 외국의 수종의 농서를 초록하고 吏讀註解가 없는 類型이다. 셋째 유형은 2종 이상 수종의 외국 농서를 초록하고 吏讀와 한글 주해를 병기한 類型이다.

우리 나라 초록본 농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 1127년 林景和가 중국의 孫氏蠶書 二卷을 이두로 번역한 것이 최초가 아닐까 믿어진다. 그러나 林景和의 蠶書註解본이 失傳된 현재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초록註解 또는 全文註解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7)[20].

이제 초록본임이 확실한 것을 年代順으로 대

표적인 것만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1) 新編集成馬醫方(附牛醫方) : 제목은 馬醫方으로 되어 있으나 1~3卷은 馬醫方으로, 4卷은 牛醫方으로 되어 있다. 1399년(정종 1년) 趙浚, 金士衡, 權仲和, 韓尙教 등이 초록한 수의서로 典醫少監房士良의 서문에 따르면 초록 원본은 중국 진나라 孫陽(일명 伯樂)의 「相馬經」과 元代의 秘訣에서 적절히 초록하고 이에 우리 나라의 경험한 바(東人已試之術)를 보탰다고 하였다. 元代에는 전문 수의서의 편찬이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그 내용은 「신편집성마의방」을 편찬할 무렵 우리 나라에서 애용되던 元代의 農桑輯要 卷七의 孳畜條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믿어진다. 여기서 이 농서의 초록본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경험한 바를 얼마나 이 농서에 반영하였느냐 하는 점이다. 그것은 馬醫方 중 東人經驗牧養條에서 340字, 牛醫方의 소의 해소(咳嗽)조에서 15字로 모두 355字만이 추가되고 있는데 그 작은 분량의 비중으로 보아 이 농서는 중국 농서의 초록본으로 봄이 마땅할 것 같다. 인체 의술을 다룬 「鄉藥濟生集成方」보다 본서가 먼저 편찬된 사실에 비추어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가축의 의술을 다룬 본서가 초록본 이상의 농서이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본서의 내용은 마소의 각종 질병과 병원, 그리고 치료법 등을 논하고 있는데 초록본 類型으로는 吏讀註解가 없는 둘째 유형에 속한다. 서문의 내용으로 보아 官撰으로 엮어진 농서다.

(2) 養蠶經驗撮要 : 右代言(右承旨) 韓相德이 1415년 太宗의 명을 받아 元代의 農桑輯要 卷4 養蠶條에서 약 30% 가량을 초록하고 이두로 註解한 양잠서로 첫째 유형에 속하는 官撰 농서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농서로 당시의 초록 태도나 이두 주해의 경향을 살피고자 抄錄文 첫 구절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例 文〕

농상집요 원문 : 齊民要術春秋考異郵曰蠶陽物
大惡水故蠶食而不飲 (22字)

농상집요 초록문 : 齊民要術春秋考異郵曰蠶陽物
大惡水故食而不飲 (21字)

농상집요 이두 주해 : 蠶殷陽物是乎等用良水氣乙
壓却桑葉叱葉分喫破爲遺飲
水不冬 (27字)

이 문장을 직역하면 “제민요술 춘추고에서 이우가 말하기를 누에는 양물(陰物의 반대)이므로 크게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누에는 먹고도 마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이다. 농상집요 원문 22字와 뜻은 같으면서 21字로 초록하고 있다. 따라서 농상집요 양잠조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을 약 1/3 가량 초록하고, 비록 초록한 문장이라 하더라도 의미만 통하면 단 한 자라도 줄이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吏讀註解文에서는 「齊民要術 春秋考 異郵曰」의 10字를 제외하고도 27字로 글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원인은 表意文字를 表音文字로 풀이함에 따른 字數 증가로 보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吏讀 풀이가 초록문의 2배 이상 되는 경우도 있는데 安秉禧[42], 金泰均[43] 등은 이두 주해가 逐字譯이 아니고 意譯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原文을 무시하고 註解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 한다. 초록자의 초록태도를 살피고자 초록에서 제외된 부분의 예를 보면 春蠶 사육은 초록하면서 원문에 있는 夏蠶이나 秋蠶 사육 등을 제외시키고 있다. 이는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우리가 受容하기 어려운 夏秋蠶 사육을 제외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잠경험찰요」는 우리 나라와 風土的 差異뿐 아니라 기술적으

로도 受容할 수 있는 부분만을 초록하였다고 볼 수 있다[2][31].

이 「양잠경험찰요」가 인간된 지 2년 뒤인 1417년에 大提學 李行과 檢詳官 郭存中이 유사한 초록주해본인 「養蠶方」을 출판한 사실이 있다(太宗實錄卷28(太宗 14年 2月 乙亥條) 右代言 韓相德 又啓曰 元朝農桑輯要 有益於民, 但其文雅 人人未易通曉 願譯以本國俚語, 令鄉曲小民無不知之上從之 命大提學李行檢詳官郭存中 成書板行). 이와 같이 동일 농서(農桑輯要)를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동일한 초록附註(吏讀) 방식으로 중복 출판한 것은 일응 의아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초록본 편찬을 명한 太宗 14년은 1414년으로 「양잠경험찰요」가 출판되기 1년 전이고 「養蠶方」이 출판되기 3년 전의 일이다. 왕명을 받은 李行 등이 農桑輯要를 초록할 때, 일의 지지부진함을 보고 抄錄本 간행을 진언하였던 韓相德 자신이 같은 농상집요를 초록하여 「養蠶方」보다 한발 앞서 간행하였다고 이해하면 의문은 해소된다. 다만 「養蠶方」이 失傳되어 「양잠경험찰요」와 대조할 수 없음이 유감이다.

또 이와 유사한 초록주해본으로 1459년 梁誠之가 엮고 徐岡과 李觀이 주해한 「蠶書註解」도 산질되어 어떤 책을 抄錄하였으며 어떤 方式으로 註解하였는지 상고할 길은 없으나 기본적인 틀은 「양잠경험찰요」와 같은 類型이 아닌가 믿어진다[33][44].

(3)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 1541년 왕명으로 편찬한 수의서로 현재 전하여지고 있는 것은 1636년 牛疫이 다시 발생하자 海州牧에서 서둘러 방역수단으로 다시 복간 배포한 책이다. 이 농서는 本草, 牛馬醫方(신편집성마의방), 神隱方, 山居四要, 事林廣記, 便民圖纂 등 6종의 농서에서 소, 말, 돼지, 양에게 전염되는 병을 치료하기 위

하여 편찬된 초록본이다. 이 농서가 특이한 것은 인용서목을 먼저 밝히고 초록문을 기록한 다음, 한 글자 내리어 이두문 풀이가 있고, 또 다시 한글 풀이를 이중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例文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例 文〕

초록書目：神隱方

초 록 문：又方於牛欄中燒安息香及蒼木以鼻吸
香立止(農桑輯要, 四時纂要, 居家必
用 並同)

이두주해：又方牛欄 취멸 령 良中安息香 產濟州 계취서

者名曰黃漆產此土者名曰火乙叱羅毛律
나느니란일후물황칠이라하고이싸히

서나느니는불나모진이라 是乃或蒼

木 두히무근
삼뚝불휘 是乃火中燒之烟氣乙

牛鼻良中薰入爲在如中病愈爲臥乎事

한글번역：호방문네쇠오희양의황칠리어나두히
무근삼뚝불휘어나브레휘위그니를고
해들에호면즉재도호리라

위 문장들의 글자수를 살펴건대 초록문에서 19字, 이의 吏讀풀이에서 小註文을 제외하고도 39字, 중복된 한글 번역문에서 43字로 漢字→吏讀→한글로 갈수록 글자數가 늘어감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2)항 「양잠경험찰요」에서 살핀 바와 같은 사정때문이라 믿어진다. 또 「양잠경험찰요」에서와 같이 吏讀나 한글 풀이에서는 서두에 나오는 書目を 풀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도 그 방식이 같은 현상이다. 이는 기술보급을 목적으로 한 초록본의 독자들, 곧 생산농민이 인용서목까지 알지 않아도 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다만 검토를 요하는 것은 吏讀 풀이를

한 후 다시 한글 풀이를 곁들인 점이다. 註解나 諺解는 근본적으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인바 한글 창제가 1446년에 공포되었고 그 사이 1461년에 崔恒의 諺解蠶書가 편찬되었어도 근 100년이 지난 이 시기까지 아직껏 이두문은 알아도 한글을 모르거나 한글은 알아도 이두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층들이 있었던 듯, 이 양자를 위하여 2중의 풀이를 곁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희귀한 농서는 초록본 셋째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文字 사용의 과도기적 교체 현상이 농서 편찬에 잘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32][45][49].

(4) 農政新篇：表題는 農政新書라고 되어 있어 혼동하기 쉬우나 內題는 農政新編으로 되어 있다. 일본 농서를 최초로 抄錄한 이 농서의 내용 및 경위에 대해서는 앞 부분(Ⅲ-3 綜合農書의 分解 과정)에서 밝힌 바와 중복되므로 재론을 피하거니와 초록자인 安宗洙는 1881년 신사유람단원의 한 사람인 趙秉稷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갔을 때 5대에 걸쳐 농학을 연구한 일본 佐藤家の 저서인 「土性辨」「培養秘錄」「十字號糞培例」「草木六部耕種法」과 중국의 胡秉秋가 쓴 「茶務僉載」 등을 얻어와 이를 순漢字로 초록하여 「농정신편」을 엮은 것이다. 이 농서는 우리 나라 최초의 西歐農學을 도입한 농서로 편찬은 1881년에 되었으나 전통 농학과의 마찰이 있었던 듯, 1885년에 가서야 초판이 이루어지고 1905년에 재판이 이루어졌다. 文字 사용면에서 보면 「新編集成馬醫方」과 같은 둘째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초록방식으로 보면 500년 전으로 되돌아간 감이 없지 않다. 이 농서는 편집체제나 용어부터가 전통농서와 완전히 다르다. 제1권의 「土性辨」을 보면 壤土 등 토양의 6종류와 土質論, 土質解析, 草木性質, 植物生理, 排水術 등 전통농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어와 체제를 따르고

있다. 더욱 이색적인 것은 作物의 分類인바, 모든 작물을 무 등의 뿌리작물, 파·사탕수수 등의 줄기작물, 대마 등 皮部作物, 배추같은 葉部作物(뽕나무·양잠도 이에 속함), 목화 등 花器作物, 벼·보리 등 열매작물 등으로 나누어 풀이한 것이다.

이 농서에는 초록자의 농학적 지식이나 전통 농학의 기술적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순수한 일본 농서의 초록본이다. 따라서 종래 중국 농서의 이용 및 초록에서 벗어나 일본 농서를 통한 서구 농학의 초록 및 이용이란 점과 중국 농서의 초록은 대부분 蠶畜 등 전문농서들이었는데 이 농서는 식량작물 위주의 종합농서라는 데 색다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농서가 갖는 결함은 酸化鐵, 鹽酸, 硝酸 등의 화학적 표시를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이다[46][47].

(5) 重麥說: 이 초록본은 우두로 유명한 池錫永이 1888년에 초록한 29면 1권 1책의 순한자로 초록된 농서다. 제목과 같이 보리 재배를 중점적으로 논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토양비료와 계사에서 닭을 기르는 법 등이 있어 종합농서 형식으로 편찬되어 있다. 池錫永 자신도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내용은 일본의 신진 서구농학자 津田仙이 쓴 「農業三事」란 책에서 보리 재배를 중심으로 초록한 것이며 맨 끝의 양계법만은 許筠의 농서(閑情錄 治農)를 발췌한 것이다. 그러나 양계의 분량은 극히 적은 부분이다.

이 농서에서 서구농학적 표현이 현저한 것은 식물도 呼吸作用과 탄소동화작용을 한다는 사실과 모든 작물은 授粉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들이다. 그러나 보리의 경우 自殖性作物이기 때문에 授粉媒助가 필요 없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초록한 것은 일본 또는 西歐 농학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빚은 결과라 믿어진다[45][55]

나. 抄錄諺解本 農書

한글 창제가 되면서 종래의 이두문 주해는 한글 번역문으로 바뀌고 있다. 한글 번역은 吏讀 註解보다 독자의 이해가 빠르다는 면에서 한층 발전된 편찬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書誌는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을 위한 媒體인 이상 보다 이해하기 용이한 수단으로 표현함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계를 지을 것은 무엇을 諺解本으로 규정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농서에 한글 사용을 도입한 것은 1480년 경 姜希孟이 衿陽雜錄을 저술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그는 작물의 품종명을 표시할 때 이두식 한자로 표기하고 이를 한글로 다시 풀이한 것이었다. 예컨대 벼 품종의 경우, 東鼎良里(동숭거리), 기장의 경우 宿乙里黍(잘으리기장), 콩의 경우 火太(불콩)등이다. 이와 같은 품종의 해설은 모두 漢字로 되어 있고 한글 풀이가 전혀 없다.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한글을 사용한 것은 諺解本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諺解本은 本文의 대부분을 한글로 풀이한 것이어야 한다[48]. 이제 이에 속하는 類型의 농서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諺解蠶書: 언해잡서는 書名은 같아도 저자가 다른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하나는 1461년 중추부사 崔恒이 우승지 韓繼禧 등 文臣 30여명과 더불어 편찬한 諺解蠶書가 있고 또 하나는 1518년 金安國이 편찬한 諺解蠶書가 있으나 두 가지 모두가 실전되어 실록에 기록만 남아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어떤 蠶書를 초록하고 언해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전자의 경우 崔恒은

세종 때 한글창제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明皇誠鑑」을 언해한 사실이 있어 그는 당대 諺解에 선구적 위치에 있었던 것 같다(33).

(2) 救荒撮要諺解 : 1554년(明宗 9년) 왕명으로 賑恤廳에서 편찬한 이 농서는 세종 때의 救荒辟穀方에서 중요한 부분을 초록하고 이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한 현존 농서다. 이 농서는 굶주림을 草根木皮로 代하고자 하는 糧政의 代案書로 전국민에게 구황식의 조리법을 주지시키고자 편찬된 것이다. 내용은 모두 11문 20항으로 술잎가루 만드는 법, 느릅나무껍질로 떡 만드는 법 등이 수록 되어 있는데 언해한 방식을 살펴보고자 例文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例 文〕

초 록 문 : ○飢困將死人救活法

○飢困之人若頓食或喫熱物則必死以生醬汁和水與之次以涼粥與之俟其蘇醒漸與粥食

한글번역 : 굶른사람이든득밥을먹거나더운거술머그면일명죽느니몬져장을춘물에프러머기고버겨서근죽을먹기되껴거든념념으로죽을주어머기라.

여기서 한글풀이의 字수가 소제목을 번역하지 않았어도 2배 가량 많음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은 까닭이다.

이 농서는 당시 영호남에 대기근이 들어 使者로 하여금 진휼구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救荒에 긴요한 것을 초록하고 알기 쉽게 한글로 엮어 널리 알리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이 책이 나온 뒤에는 관찰사, 敬差官, 都事 등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에 대한 것을 질문하여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관계관을 논죄하겠다는 서문이 있다. 곧 언해본은 국가적 필요에 따라 만백성에게 철

저히 주지시키고자 할 때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馬經抄集諺解 : 1630년대 李曙가 明代 馬師問이 편찬한 통칭 「馬經大全」(新刻參補針醫馬經大全)과 1399년 趙浚 등이 초록편찬한 「新編集成馬醫方」에서 다시 초록하고 이에 적절한 간격으로 한글풀이를 곁들인 책이다. 이 농서는 임진왜란과 연이은 정묘, 병자의 두 胡亂을 겪고 나서 전쟁에 요긴한 馬政쇄신책의 일환으로 諺解된 수의서다. 北伐계획이 은밀히 추진되면서 전국의 국립목장을 정비한 「牧場地圖」(1635)를 작성하는 한편 戰馬 육성을 위해 본서가 편찬된 것이다. 그런데 이 농서의 언해 방법은 「구황촬요언해」와 달리 초록문 漢字에도 한글뱀틀 병기한 점이다.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例 文〕

○論는馬마有유父부母모라 ○ 물의부모이심
을의논흙이라

東동溪계問문曲곡川천曰왈馬마有유父부母모乎

호.아○ 동계란사람이곡천이란사람더러 曲곡
무러글오드물이부되었나

川천이曰왈龍농之지生심也야니○곡천이글오디
농이나하시나

混혼元원이初초開리에○ 턴지처음
삼길재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漢字 하나하나에 한글로 音吐를 달고 그 문장을 적절한 간격으로 나누어 한글 小註로 풀이하여, 특이한 언해방식을 따르고 있다. 내용을 이해해야 할 독자의 입장에서 한글 音吐는 불필요했는지도 모른다(49).

(4) 新刊救荒撮要 : 1660년 申澍이 「구황촬요언해」에다 자신의 저술인 「救荒補遺方」을 합본하여 만든 것으로 편찬방식은 「구황촬요언해」와 같으나 구황식으로 메밀, 칩, 밤, 토란, 밀(臙), 살구

씨, 부령 등을 추가하여 엮은 것이다. 한글 언해는 구황촬요와 같은 유형에 속한다.

다. 한글본 農書

17세기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한글본 농서가 편찬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글본 농서들은 식품 및 조리에 관한 것들이며 대부분이 여성들에 의해 편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사대사상과도 관련이 있어 남성들이 체통상 漢文을 선호한 반면 男尊女卑로 인해 교육의 기회가 적은 여성들이 배우기 쉬운 한글을 익혔기 때문에 풀이되고 있다. 또 한글 식품서를 쓴 저자들의 입장뿐 아니라 이를 읽을 대상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글이나 식품의 내용들은 여성들이 읽을 몫이기 때문에 한글 식품서는 여성들을 위한 합리적 농서이기도 하다. 19세기말에 이르러 한글 蠶書가 초록되고 있는데 이 역시 양잠이 남성보다 여성쪽에 가깝기 때문이다. 옛부터 蠶夫란 말은 없어도 蠶婦, 蠶母란 말이 있듯이 養蠶은 王室에서부터 여성의 직무였다. 이제 한글 농서를 例舉하면 다음과 같다.

(1) 여러 가지 한글 식품서: 한글 식품서에 관해서는 기술한 專門農書와 중복되므로 내용은 생략하고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오는 장단점을 음미코자 한다. 한글로 기록된 식품서는 1670년경 石溪夫人 安東張氏가 엮은 「음식디미방 飲食知味方」, 같은 시기 찬자 미상의 「酒方文」, 1809년 徐有本의 처 李氏가 편찬한 「閨閣叢書」, 1800년대 찬자 미상의 「술만드는법」, 「술진은법」, 1860년 찬자 미상의 「金承旨宅 주방문」, 1896년 찬자 미상의 「음식혀여먹는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한글 식품서의 결함은 ①대부분 私撰이어서 저술 당시 刊本으로 인쇄 배포되지 않아 同學間, 前後자간의 지식 전달이 극히 제한된다는

점과 ②대부분 저자나 연대가 밝혀져 있지 않고 인용문헌이 없어 당해 식품의 개발지역이나 개발연대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글 식품서는 고을마다, 가문마다 비방을 통해 전수된 전통식품의 아기자기한 조리법을 사실적이고 알기 쉽게 기록하였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우리말로 전해 오는 식품의 재료나 식품의 명칭 등은 漢字 표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이런 용어는 한자보다 한글로 표시함이 제격인 경우가 많다.

(2) 잠상집요(蠶桑輯要): 이 잠서는 1886년(고종 23년)이희규가 잠업기술의 내용을 한글로 초록한 蠶書이다. 卷末에 「광서십이년초순전주이희규언초(諺抄)」라고 기록된 점과 36개의 뽕나무와 양잠제사 과정의 여러 가지 도해설명이 李祐珪의 「蠶桑撮要」와 일치함을 볼 때 이 잠서는 「잠상촬요」를 한글로 초록한 것이다.

이 잠서는 우리 나라 최초의 한글 기술서로 양잠을 주로 담당하는 여성들을 위해 여성들이 잘 익히고 있는 한글로 초록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초록자는 남자인 것으로 여겨진다.

라. 國漢文混用の 抄錄 및 翻譯本農書

19세기말경에 접어들면서 門戶開放과 더불어 근대적인 서구농학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농서를 통하여 볼 때 서구의 농학이 도입된 것은 반드시 일본을 통하여 도입된 것은 아니었다. 비록 作物學이나 재배학서를 통한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 약 50년 앞서 泰西(서양)의 水利學이 중국을 통해 이미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泰西의 農法은 중국을 거치는 동안 중국의 전통농법에 용해되어 水利土木 분야를 제외하고는 우리 나라까지 전달된 것이 거의 없었다. 본격

적인 서구농법의 도입은 전기한바 1881년 신사 유람단이 일본에 다녀오면서 비롯되었고, 1883년 閔泳翊 일행의 견미사절단이 때마침 보스턴(Boston)에서 개최중인 박람회를 관람하고 실용적인 신농기구 도입을 구상하였으며, 또 인근의 월콧 모범농장(Walcott Model Farm)을 보고 서양의 새로운 작물이나 가축 등을 도입하여 1884년 망우리 일대에 農務牧畜試驗場을 설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농잠분야에 유럽의 技師들을 초청하는 등 우리 나라가 차츰 서구농법에 접근할 무렵 우리보다 한발 앞서 서구 농법을 도입한 일본의 농서를 초록한 것이 전기한 「농정신편」이며 이의 難解한 점을 해소코자 엮어진 것이 國漢文混用으로 나온 농서들이거나 번역본들이다. 개화기 농서들의 편찬방식을 살피고자 분야별로 몇 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農政撮要: 우리나라 최초의 국한문 혼용의 농서로 후일 농상공부대신이 되었던 鄭秉夏가 엮은 농서다. 내용은 토양, 비료, 주곡작물과 담배, 목화 등의 특용작물 재배법을 종합한 3권 1책 157면의 농서이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편찬방식은 바로 이 농서가 기원이 된다. 이 농서의 중요성은 순한문으로 된 전통농서에서 벗어나 알기 쉽게 국한문으로 풀이한 데 있다. 이 농서가 편찬 유형뿐 아니라 내용에서까지 전통농서와 확연히 구별되는 例文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30)[45].

〔例文〕

- ① 泰西各國에서 (토양 속에) 空氣疎通之器를 만드러 비료를 쓰지 아니하고 年年이 耕作하되 百穀이 充實하여 病敗之憂 없이……
- ② 穀物蔬菜等이 다 雄種雌種別이 있어서 泰西에 兩麥交婚法이 있어서 此法을 近者에 日本

서도 試驗하여 大得亨을 만나니 此法이 極히 有理호리라.

위 예문 ①에서 토양의 공기 소통만 잘되면 비료를 쓰지 않아도 곡실이 충실하고 병패가 없다 하여 토양공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까지는 좋으나 무비료 상태로 결실이 충실하고 병이 없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며, 예문 ②에서 서양에서 인공으로 보리, 밀에 授粉媒助하는 방식을 일본에서 시험하여 크게 득을 보았다는 것을 초록한 것은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가소로운 일이다. 보리와 밀은 수분매조가 필요없는 自殖性 작물이다.

모든 식물에 필요한 土壤通氣, 他殖性作物에 필요한 授粉의 원리 등 植物生理學의 풀이는 전통적인 중국 농서나 우리 나라 농서에는 없었던 내용 들이다.

(2) 養鷄新論: 1900년이 지나면서 일본 농서의 초록 및 번역본 농서가 늘어나고 전통농서의 편찬은 사라지게 된다. 또 이 시기를 계기로 종합 농서는 분해되어, 고도한 전문농서로 교체되게 된다. 이 양계신론은 鮮于觀가 일본인 井上正賀가 엮은 養鷄新論을 국한문혼용으로 번역하여 1908년에 출판한 축산서로 내용은 계란의 부화, 사육과 병리, 계사, 육용계, 난용계, 겸용계, 애완용, 닭의 질병, 계란의 저장 사료 분석표 등을 116면에 담고 있다. 우리 나라 최초의 서구식 양계 전문서로 알려져 있다(45).

(3) 養蠶實驗說: 1901년에 인공양잠법을 보급시키기 위하여 거액의 자금을 쓰면서 강습소를 설치하고 강습회를 가졌으나 모두 실패하여 譯者인 鄭宇相이 직접 일본의 東京蠶業講習所에 가서 그곳의 일인 강사 土屋泰가 口演한 새양잠법의 내용을 국한문 혼용으로 엮어 1908년에 출판

한 잠업 기술전문서다[45].

(4) 農方新編 : 李覺鍾이 일본인 中城이 쓴 實地農學書에서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한 것을 초록하고 번역하여 1909년에 출판한 농서로 내용은 토양비료, 각종 작물의 재배, 병리, 곤충 등에 대한 종합농서로 되어 있다. 이 농서의 특징은 최초로 태양력을 쓰고 있다는 것이며 재배시기의 기준은 중부지방을 표준으로 한 점이 특이하다[45].

(5) 最新森林學 : 출판사 義進社에서 일본인 奧田이 쓴 林書를 국한문혼용으로 번역하여 1909년에 출판한 것으로 내용은 독일 林業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거나 測樹, 林價算法, 受光伐 등 전통임서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山林科學이 포함되어 있다.

(6) 新撰應用肥料學 : 1910年 金達鉉이 일본인 학자 河村九洞과 難波五百磨 등이 저술한 농서를 초록하고 우리 나라에서 건문한 바를 보태어 쓴 134면의 肥料 전문서다. 내용은 총론에 이어 비료를 동물질, 식물질, 광물질 비료 등으로 분류하고 각론식으로 각 비료를 풀이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작물별 적정 시비량을 들고 있는 점이다[45].

마. 日語體 農書

1900년대에 접어들면서 日本農書의 抄錄本과 翻譯本을 거쳐 대한제국의 쇠퇴와 더불어 마침내 日語體 農書가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日語體 농서는 비록 우리 文字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그 내용은 우리 농업을 바탕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서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

日語體 농서의 효시는 일제 통감부가 설치되기 전부터 침략의 기초자료로 편찬되었는데, 그 특징은 체계적인 기술서가 아니라 당시의 한국

농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종합적 자료의 성격을 가진 농서들이었다. 우리 나라의 현대적 農業敎育은 1886년 育英公院에서 비롯되어 1906년 水原農林學校가 설립되면서 본격화되었으나, 이 무렵에는 계속 국한문혼용의 농서들이 편찬 이용되어 왔다.

초기의 일어체 농서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61][62]

(1) 韓國之農業 : 일본 오와계현(大分縣) 기사 고지마 기사꾸(小島喜作)가 1903년 충청, 전라, 경상 등 6개도의 농업사정을 49일간 조사하고 그결과를 1904년에 일어로 편찬 출간한 것이 「韓國之農業」이다. 내용은 우리 나라의 기후와 토양, 작물재배, 품종과 품질, 축산, 양잠, 田制, 영농법 그리고 당시 우리 나라에 와 영농을 하던 일인들의 현황 등을 엮은 일종의 조사보고서 같은 책이다. 본서는 소루한 감은 있으나 1903년 우리 나라의 영농기술, 농지제도 등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2) 韓國土地農產報告 : 1905년에 일제 농상무성이 한국의 농업사정을 조사한 3책(권)의 농서인데 집필은 일본 농사시험장 기사 고바야시(小林房次郎), 일본 농상무성 기사 나까무라(中村房) 등이 1905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이 경기, 충청, 강원도 등지를 돌아보며 우리 농업 실정을 살살이 조사한 방대한 보고서다. 전기한 「韓國之農業」보다 구체적이고 매우 상세하게 꾸려져 있다.

(3) 韓國水產誌 : 일제 농상공부 수산국과 조선 총독부 농상공부가 공동으로 우리나라 전국의 연안과 도서 및 하천에 대한 수산의 실상을 조사한 기록이다. 모두 4권 4책 3,500면의 방대한 기록인데 1권은 1908년에 출판되었다. 그 내용은 沿海漁情, 水產行政 등 총괄적 내용이고, 2권은 함북, 강원, 경남 등 동남해안 5개도의 漁情,

海流, 魚族, 漁撈 등에 관한 설명과 사진 및 통계 등이 수록되었으며, 3권은 1910년에 전북, 충남의 내용이, 4권은 경기, 황해, 평남의 내용이 1911년에 각각 1권과 같은 편찬방식으로 꾸려져 있다. 이 농서는 구한말의 수산 실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2. 月令式 農書

농업생산은 자연에 대한 의존도가 타산업보다 높다. 특히 四時의 기상변화가 확실한 온대지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사시나 월별, 그리고 24절후에 따른 기상변화가 분명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농업생산이 이 기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역대 위정자들은 天時 또는 順時라 하여 適期營農을 강조해 왔다. 月令式 農書는 농서를 이러한 기상변화와 관련지어 1年12個月 다달이 해야 할 농가의 행사를 해당 월마다 풀이한 것이다.

우리 나라 月令式 農書는 서술체와 가사체의 두가지 類型이 있다. 서술체는 해당 월의 행사를 농사 메모 형식으로 기록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심도있게 장문의 풀이를 곁한 것들이 혼합되어 있고 가사체는 음률에 맞추어 노래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月令式 농서는 적기영농에 참고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같은 벼농사라도 해당 월마다 해야 할 일들을 나누어 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작물학 각론식과 같은 조직적이고도 일목요연한 풀이를 결한 단점이 있다. 특히 농가월령과 같은 가사체 농서는 심도있는 풀이마저 결하여 간단한 농사 메모 형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文盲率이 높던 당시에는 이 가사체 농서가 기술보급에 효과가 컸던듯, 周나라 孫陽이 쓴 「相馬經」 그리고 이를 초록한 「新編集成馬醫

方」 중 34종에 걸친 말의 질병을 七言詩의 노래로 엮은 病源歌가 있음을 볼 때 이와 유사한 가사체 월령식 농서를 전혀 낮게만 평가할 수는 없다.

우리 나라의 月令式 농서는 그 연원이 중국 漢代의 崔寔이 엮은 四民月令에 두어야 할 것 같다. 唐末 韓偓이 엮은 四時纂要가 바로 四民月令의 체제를 따랐고 姜希孟이 이 四時纂要에서 적절히 초록하고 그 체제를 따라 四時纂要抄를 편찬 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나라의 월령식 농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四時纂要抄: 이 月令式 農書는 1480년경 「衿陽雜錄」의 저자 姜希孟이 편찬한 것이다. 韓顥의 「四時纂要」는 고려조 이후 우리나라에서 勸農의 지침서로 활용되어 왔었고, 1590년에 경상도 左兵營(울산군 하상명 소재)에서 복간까지 한 사실이 있다.

姜希孟은 「사시찬요초」를 편찬할 때 앞에서부터 3/4까지는 「사시찬요」와 같은 월령식의 편찬 방식을 따르고 나머지 25% 가량은 일반농서의 편찬방식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사시찬요초」는 전체적으로 보아 서술체 월령식과 일반농서의 複合體 농서가 되고 있다.

또 앞부분 75% 가량도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보면 「四時纂要」에서 많은 부분을 초록하고는 있으나 「農桑輯要」나 「農事直說」 그리고 자기 형 姜希顔이 쓴 「養花小錄」, 韓尙德의 「養蠶經驗撮要」 등에서 초록하여 해당 월령에 삽입하고 있다. 따라서 「사시찬요초」는 月令式 부분 75%가량도 「사시찬요」에서만 초록한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시찬요초」는 초록이라기 보다는 편찬이라고 봄이 마땅할 것 같다.

다음 이 농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살펴건대 이 농서 이전의 「농사직설」이나 「금양잡록」은 주곡작물에 치우친 농서라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한 권농의 지침서가 당시에는 없었다.

강희맹은 이 점에 착안하여 양잠, 양봉, 양축, 栽竹, 식품가공, 果木, 花木 등에 대한 내용을 폭 넓게 본서에 수록하여 15세기 농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다. 바로 이 점에서 「사시찬요초」가 농서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56][58]

(2) 農家月令: 高尚顔이 1619년 이 서술체 농서를 엮었다. 그는 內職을 마다하고 자기 부모를 공양할 목적으로 계속 지방관을 역임하였다. 그는 勸農의 직에 있던 경험과 자기 世居地인 경북 상주 지방의 慣行農法을 체험을 통해 정리하여 이 농서를 엮었다. 따라서 다른 농서와 같이 기존 농서에서 이리저리 발췌하여 엮은 것이 아니다. 내용은 매월 두 번씩 있는 절후에 따라 그때그때의 농사일을 자상히 기록하고 있다.

맨 끝에는 雜令이라 하여 거름저장, 農牛관리, 地力과 輪作 등에 관한 것을 부록 형식으로 부기하고 있다[57].

(3) 農家月令歌: 1816년 丁茶山의 둘째 아들 丁學遊가 엮은 가사체 농서로 다달이 힘써야 할 농사일과 철마다 알아 두어야 할 풍속 및 예의 범절 등을 韻文體로 기록한 국한문혼용의 농서이다. 모두 518구로 되어 있으며 農時를 강조하고 農牛 다루는 법과 거름의 중요성, 그리고 전답, 과목, 양잠, 축산, 양봉, 山菜, 약초, 장담그기, 누룩, 방적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농서로써 보다는 가사문학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4) 農家月令: 오랜 동안 童蒙敎官으로 있던 李基遠이 그의 중년기(1860년 전후)에 엮은 국한문 혼용의 가사체 농서로 모두 735구로 되어 있다. 체제는 丁學遊의 「농가월령가」와 유사하다. 姜銓變은 이 농서가 정학유의 「농가월령가」, 尹禹炳의 「農夫歌」와 더불어 우리 나라 三大 農民

文學作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가사의 내용은 序詞部에 이어 다달이 해야 할 농가의 행사를 月令별로 수록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충남 공주 지방의 풍속, 방아타령, 移秧謠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59][60].

그밖에 찬자와 연대 미상인 農家要覽이 있으나 方述書에 가까우며 1861년에 金迥洙가 엮은 農家十二月俗詩, 月餘農歌 등은 주로 「농가월령가」를 초록하고 일부를 증보하여 만든 漢譯詩에 불과하다.

VI. 韓國農書의 類型에 따른 時代區分

이상에서 韓國農書 전체를 綜合農書와 專門農書로 大別하고 다시 같은 자료를 抄錄 형태, 使用文體(字)와 註解 및 諺解, 그리고 계절에 따른 농서편찬 여부 등에 따라 類型化하면서 해당 농서의 대표적 예를 들어 보았다.

이로써 우리 나라 옛 농서의 개략적 윤곽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나 본항에서는 이들의 농서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배열되고 상호교체 되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그와 같은 고찰은 우리 農書와 農業技術의 발전을 위해 여러 類型의 농서들이 무슨 필요 때문에 形成되었으며 類型間에는 어떤 補完的 관계가 있었는가를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 類型의 농서들은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한 시대적 產物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농서를 한 묶음으로 볼 때 각 類型은 한국 농서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나를 살피자는 것이다.

농서의 시대 구분은 대략 다음과 같은 5단계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의 시기는 중국 농서의 초록본 또는 초록에 史讀(俚言) 주해가 附註된 농서의 시대이다. 그 기원은 1127년 林景和의 「孫氏蠶書註解」에서 비롯되며 1415년 韓尙德의 「養蠶經驗撮要」, 1417년 李行 등의 「養蠶方」, 1459년 梁誠之 등의 「蠶書註解」 15세기말 찬자미상의 「農書輯要」 등 중국농서의 抄錄에 이두 주해가 붙은 類型과 이두 주해가 없이 단순히 초록만한 類型的 농서들이 포함되는 시기이다. 후자의 경우 1399년 趙浚 등의 「新編集成馬醫方」, 1420년 전후 朴興生の 「撮要新書(耕稼, 蠶桑)」 등이 이에 속한다.

시대적으로 보아 대략 12세기에서 15세기에 걸쳐 있는 이들 두 類型的 농서들은 中國農書의 抄錄本이라는데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주로 中國農書 이용에서 韓國農書 編纂까지의 과도기적 접속 역할을 담당한 농서들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제2단계의 시기는 漢文體 韓國農書의 시대로 抄錄本 농서를 이어받아 우리 농서의 골격을 이루는 종합농서들이 모두 이 시기에 속한다. 그 기원은 1429년 鄭招의 「農事直說」에서 비롯되어 1480년경 姜希孟의 「衿陽雜錄」과 「四時纂要抄」, 1618년 許筠의 「閑情錄」, 1619년 高尙顏의 「農家月令」, 1655년 申燾의 「農家集成」, 1676년 朴世堂의 「穡經」, 17세기말(전후) 洪萬選의 「山林經濟」, 1760년대 辛仲厚의 「厚生錄」, 1771년 徐命膺의 「攷事新書」, 1766년 柳重臨의 「增補山林經濟」, 1787년 徐命膺의 「本史」, 1782년 朴齊家の 「北學議」, 1799년경 徐浩修의 「海東農書」, 1799년 朴趾源의 「課農小抄」와 趙英國의 「農書總論」, 1800년경 禹夏永의 「千一錄」, 1830년경 崔漢綺의 「農政會要」, 「農政書」, 「陸海法」, 1842~45년간 徐有渠의 「林園經濟志」, 1872년 李大圭의

「農圃問答」, 1894년 李滄遠의 「農談」 등이 이에 속하는 주요 농서들이며 그 기간은 15세기초엽에서 19세기말까지 걸치고 있다. 이두 주해가 없는 漢文體 농서가 계속 편찬 이용된 것은 반드시 이두 주해가 아니라도 漢文 해독이 가능한 농서이용층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朱子學을 통한 漢學 지식의 보급이 곧 이 類型的 농서가 500년간을 존속할 수 있었던 문화적 배경이 될 수 있었다. 계속된 농산물의 수요 증가와 기술 개선의 필요에 의해 19세기말까지 이들의 농서는 시대가 지날수록 質的인 개선과 數的인 증가를 가져왔다(63).

제3단계의 기간에는 抄錄諺解本들이 편찬이용되던 시기로 諺解를 이두 註解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생각하면 제1단계의 시기와 일응 같다고 이해할 수 있다. 諺解나 註解는 근본적으로 漢文體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속하는 농서들을 보면 이 시기(15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중반)에 이런 農書들의 필요성은 제1단계와 약간 다른 면이 있다. 蠶書로 1461년 崔恒 등의 「諺解蠶書」, 1518년 金安國의 「諺解蠶書」, 구황서로 1554년 진홍철의 「救荒撮要諺解」, 1660년 申涇의 「新刊救荒撮要」, 獸醫書로 1630년대 李曙의 「馬經抄集諺解」, 1541년 官撰인 「牛馬羊猪染疫治療方」등이 이 시기에 속하는 언해서 들인데 이 농서들은 모두가 蠶畜이나 食糧不足을 메꾸는 전문농서로 부족한 기술의 새로운 보충과 신속한 기술의 보급에 목적을 둔 농서들이다. 제1단계의 抄錄註解本들은 중국 농업 기술의 도입과 이해 그리고 韓國農書 편찬의 전단계 기초작업으로 필요한 농서들이었고, 제3단계의 그것은 중국 농서뿐 아니라 기존 한국 농서에서도 초록하되 기존 농서의 농업지식을 신속히 보급 확산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면서 2

차적으로 농서에 부족한 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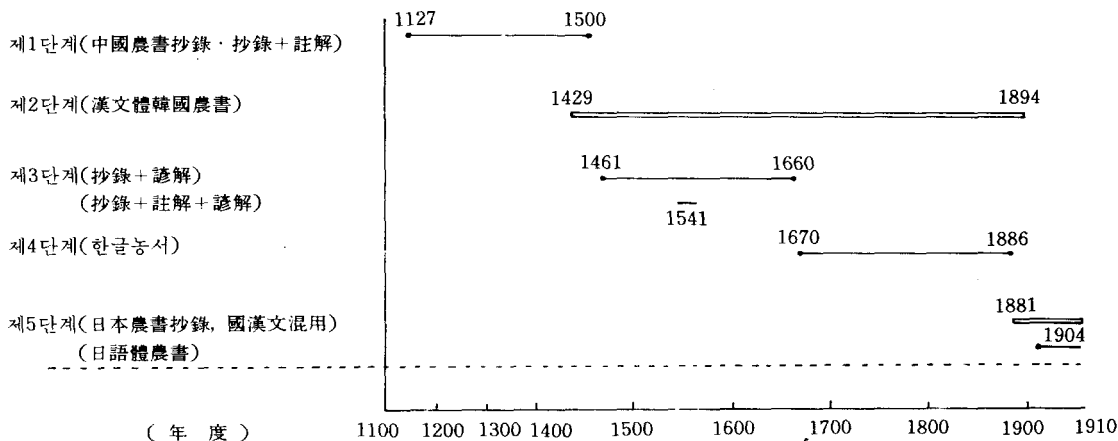
농업지식의 신속한 보급을 목적으로 한 대표적 예는 註解와 諺解가 함께 곁들여진 「牛馬羊 猪染疫治療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얼마나 지식보급의 필요성이 긴박했으면 註解와 諺解를 한 농서에 병기하였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4단계는 한글본 농서가 편찬 이용된 시기로 1670년 石溪夫人 張氏에 의한 「음식디미방」에서 비롯되며 여러 食品書에 이어 1886년 이희규의 「蠶桑輯要」가 초록언해되던 시기까지의 기간이었다. 한글 보급의 진전과 식품 및 식품조리에 관한 관심을 배경으로 女性들이 보다 많이 익힌 한글을 통해 女性에게 필요한 한글 식품서가 새로이 등장함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女性들의 주업인 家內양잠서가 한글로 된 것도 대상을 여성으로 하였기 때문에 편찬된 것이다. 이 한글본 농서는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말에 걸쳐 한글이라는 새로운 표현수단을 통해 제2단계 농서에 보충적 구실을 하고 있다.

제5단계의 시기는 國漢文混用の 文體로 西歐

의 現代農學을 도입코자 주로 日本農書의 抄錄과 번역본이 편찬 이용되던 시기로 1900년 이후에는 일부의 日語體 농서도 편찬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그 기간은 1881년 이후가 되는데 이 시기의 중요 농서들은 1881년 安宗洙의 「農政新編」, 1886년 鄭秉夏의 「農政撮要」, 1888년 池錫永의 「重麥說」 등이며, 1900년 이후에는 養鷄, 肥料, 養蠶, 森林 등에 관한 專門農書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이 5단계 농서들은 전통농학의 農書들이 담고 있는 기존의 農學知識을 송두리째 소외하고 서구농학 일변도의 새 지식만을 편찬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1894년 李滄遠의 「農談」을 마지막으로 전통 농서의 새로운 편찬은 막을 내리고 제5단계 서구농학에 새로운 농서시대의 자리를 물려 주게 되었다. 이에 대한 장단점의 고찰은 후일에 재론키로 하며 이와 같은 각 농서들의 시대적 구분과 交替 현상을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1>과 같다. 도표에서 線을 複線으로 표시한 것은 당해농서 유형이 우리 농서의 골격적 主流를 이루었다는 뜻이고, 가늘게 표시한것은 해당 농서들이 주류 농서들의 보

그림 1 編纂類型에 따른 韓國農書의 時代的 區分



완적 구실을 한 뜻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끝으로 月令式類型的 농서들은 그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중 가사체 농서는 그 서술이 조직적 체계적이지 못하여 도표 작성에서 제외시키고 서술체 농서는 제2단계 類型에 포함시켰다.

이상에서 농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찰하였고 이를 時代的으로 구분하였으나 農書의 時代는 한 단계 農書의 時代가 끝나고 다음 단계의 農書의 時代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前段階 農書時代의 末期와 다음 단계 農書時代의 前期가 증부된다는 점이며 註解本이나 諺解本들은 항상 2단계, 漢文體 韓國農書의 補助역할을 해왔다는 점이다. 또 새로운 農學知識의 導入은 항상 抄錄本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參考 및 引用文獻

- [42] 安秉禧, 1977, “養蠶經驗撮要와 牛疫方의 吏讀의 研究”, 「東洋學」, 7輯.
- [43] 金泰均, 1968, “養蠶經驗撮要의 吏讀註解”, 「釜山大論文集」, 9號.
- [44] 魏恩淑, 1988, “12世紀 農業技術 發展”, 「釜山史學」, 12輯, p.109.
- [45] 金榮鎮, 1982, 「農林水産古文獻備要」, 研究叢書9, 韓國農村經濟研究院.
- [46] 金明培, 1984, “農政新編出典의 書誌考”, 「國會圖書館報」, 6~7.
- [47] 李光麟, 1968, “農政新編에 대하여”, 「歷史學報」, 39.
- [48] 孟澤永, 1975, “諺解書의 史的考察”, 「清州敎大論文集」, 15.
- [49] 三木榮, 1965, “朝鮮牛疫史考”, 「朝鮮學報」, 34.
- [50] 金榮鎮, 1988, “최초의 한글식품서: 음식디미방”, 「식생활」, 88-6.
- [51] 金思燁, 1960, “閩壺是議方과 田家八曲”, 「慶北大論文集」, 第4輯.
- [52] 鄭良婉(譯), 1975, 「閩閩叢書」.
- [53] 金榮鎮, 1972, 「蠶絲學古典研究」.
- [54] 太宗實錄 卷28 太宗 14年 2月 乙亥條.
- [55] 池錫永, 1988, 「重麥說」.
- [56] 金榮鎮, 1985, “四時纂要抄와 四時纂要의 比較研究”, 「農村經濟」, 8-1.
- [57] 金容燮, 1987, “農家月令의 農業論”, 「東方學誌」, 第54-56集.
- [58] 金容燮, 1988, “農事直說과 四時纂要의 木綿耕種法”, 「중보 東洋學誌」, 第57集.
- [59] 姜銓燮, 1987, “蠅叟 李基遠의 農家月令에 대하여”, 「韓國學報」, 20.
- [60] 姜銓燮, 1987, “새 資料 農家月令”, 「韓國學報」, 20.
- [61] 李殷雄, 1983, 「韓國農業技術史」, pp.768~70.
- [62] 表鉉九, 1980, 「韓國園藝發達史」, pp.6~8.
- [63] 金容燮, 1987, 農書輯要의 농업기술, 「世宗學研究」, 2.